

KINU Insight

2021
No.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KINU Insight 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I. 논의배경	1
II. 개황	3
III. 시장 소비자물가 변동	5
IV. 시장환율 변동	14
V. 평가 및 전망	17
참고문헌	21

차 례

표 차례

〈표 II-1〉 연도별 시장의 물가와 환율	4
〈표 III-1〉 품목별 지수 변동률 및 기여도(지출목적별)	6
〈표 III-2〉 농산물 및 석탄·석유류 제외 지수 변동률	7
〈표 IV-1〉 연도별 시장환율	14
〈표 V-1〉 북한시장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가중치	19
〈표 V-2〉 북한시장 소비자물가지수(품목별)	20

그림 차례

〈그림 III-1〉 품목별 변동률	8
〈그림 III-2〉 주요 곡물의 시장가격	9
〈그림 III-3〉 북한시장과 국제시장의 쌀 가격	10
〈그림 III-4〉 주요 에너지 품목 시장가격	11
〈그림 III-5〉 기타소비재 시장가격	12
〈그림 III-6〉 북한시장의 쌀 가격 및 달러 환율 추이	13
〈그림 IV-1〉 시장환율의 분기별 변동	15
〈그림 IV-2〉 북한시장 위안/달러 환율(국제시세와 비교)	16

참고

〈참고 1〉	13
〈참고 2〉	19

I 논의배경

- 시장의 물가·환율 자료를 토대로 대북제재·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을 평가
 - 계획과 시장으로 이원화된 북한경제에서, 시장의 소비자물가와 환율은 각각 소비재와 외화의 수급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 최근 대북제재 장기화, 코로나19 확산, 자연재해 등의 경제적 충격이 중첩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가계의 생활 여건에 대한 관심이 확대
 -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해 수출중단에 따른 외화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통제를 강화한 2020년에는 대중수입이 약 80% 감소하여 주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
 - 뿐만 아니라 수해·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도주의적 위기 확대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는 상황
 - 시장물가의 변동성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환율의 변동성도 최근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
 - 시장물가의 변동성은 대북제재 포함 여부, 수입의존도, 식량수급여건 등에 따라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환율은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갔으나, 2020년 10월 말에는 단기간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 북한시장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CPI) 시산을 시도
 - 본고에서는 2013~2020년 중 북한시장의 식료품, 소비재, 서비스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시산하여, 북한경제 분석을 시도

- 북한시장의 가격 및 환율 정보는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등 북한동향을 제공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들도 이를 정리하여 북한경제 분석에 활용
 - 본고는 북한시장 가격 정보를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여, 품목별 지수의 변동 추세와 원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음.
 - 소비자물가·환율 동향 분석에는 『북한농업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에 수록된 식료품 가격, 통일연구원이 『데일리NK』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하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를 이용
 - 『북한농업동향』은 2013~2020년 북한시장의 식료품, 농자재 가격 및 시장환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고의 분석 대상기간을 2014~2020년으로 제한
 - 2021년 상반기 동향은 시장 쌀 가격과 북한 원/달러 환율 변동을 중심으로 <참고 1>에 간략히 정리
 - 소비자물가 동향은 북한시장의 소비재 가격에 한국의 1975년 도시가계조사의 소비지출 구성을 적용하여 산정한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분석(지수산정 방법은 <참고 2>를 참조)
 - 최근 북한가계의 소비지출 구성이 한국의 1975년과 유사하다고 가정
- 다만, 본고에서 시산한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북한가격 정보의 불완전성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
- 조사된 품목의 품질 및 규격 불일치, 전달과정의 착오 등 수집된 가격 정보 자체의 신뢰도가 높지 않고 불완전함에 유의
 - 다만, 북한경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통계가 매우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II 개황

- 대북제재 강화 이후 시장물가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확대
- 2014~2016년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물가는 2017년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020년에는 최대 상승폭을 시현
- 2014~2016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는 하락세를 시현한 바 있는데, 이는 과잉 유동성을 공식 금융제도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둔 북한식 금융개혁의 결과로 보임.
 -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 이후, 공식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며 외화통용과 사금융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시장물가는 2012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¹⁾
 - 김정은 집권 초기 실시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경제주체 보유 현금을 공식 금융제도로 흡수하는 데 중점, 과잉 유동성이 흡수²⁾됨에 따라 2014~2016년 음(-)의 물가상승률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
 - 이외에도, 식량수급여건의 완화, 경공업 국산화와 국영사업망 회복에 따른 소비재 공급 증가도 시장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는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7~2018년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봉쇄가 시작된 2020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
 -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7년과 2018년 시장물가는 각각 3.3%, 9.4% 상승
 -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 확대, 비축수요 증가, 제재로 인한 일부 품목의 시장공급 감소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
 - 2019년 시장물가 하락(-9.5%)은 직전 2년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를 일부 포함
 - 또한, 제재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재 수입이 대북제재 강화 이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1) 최지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동향,” 『한반도 포커스』, 제41호 (2017), pp. 47~54.

2) 공식 금융기관에 기업 보유 현금을 예치(현금 돈자리, 외화 돈자리)하고 주민보유자금을 기업 대출로 증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결제카드(나래카드, 전성카드)의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유동성을 흡수.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세종: 산업연구원, 2018), pp. 274~290.

- 코로나19 충격이 확산된 2020년 시장물가는 17.2% 상승하여, 2015년 이후 최대 상승폭 시현
 - 자연재해에 따른 신선식품의 공급 축소, 국경봉쇄에 따른 수입소비재의 공급 축소가 시장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방역강화에 따른 부분적 지역 봉쇄, 물자 이동 통제도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여건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음.

□ 분석 기간 중 시장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

- 시장물가와 달리, 시장환율은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7~2019년 중 비교적 $\pm 1\sim 2\%$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
 - 2017~2019년 중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외화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
- 다만, 2020년 4/4분기에는 시장환율의 변동성이 단기간 확대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2021년 2/4 분기에도 연이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면밀한 관찰을 요함.
 - 시장환율이 단기간 평가절상된 배경이 분명하지 않으나, 국경봉쇄로 외화의 해외 유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외화 사용 통제, 시장환율에 대한 한도 부과와 같은 북한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

〈표 II-1〉 연도별 시장의 물가와 환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장 소비자물가 ¹⁾	109.8	100.0	99.5	102.7	112.3	101.7	119.1
(2015=100, %)	-3.6	-8.9	-0.5	3.3	9.4	-9.5	17.2
시장환율 ²⁾	7,852.4	8,380.5	8,183.4	8,088.5	8,253.0	8,236.2	7,976.3
(북한 원/달러, %)	-4.7	6.7	-2.4	-1.2	2.0	-0.2	-3.2

주: 1) 한국의 1975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자세한 방법은 <참고 2> 참조)

2)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분기별)를 연평균한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6.10.~2020.3.)

<<https://www.krei.re.kr/krei/globalList.do?key=317&pageType=0303>> (검색일: 2021.6.30.);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시산

III 시장 소비자물가 변동

-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7~2018년 북한 시장 소비자물가는 3.3~9.4% 상승
-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 제재 항목 여부, 수입 의존도 등에 따라 품목별 변동이 상이하게 나타남.
 -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은 비축수요 증가로 이어져 시장물가 상승을 유발
 - 대북제재의 수출 제한 항목은 제재 직후 내수로 전환, 시장공급 증가로 시장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반대로 수입 제한 항목은 시장공급 감소로 시장가격이 상승
 - 품목별 수입 의존도에 따라 무역충격의 여파는 다를 수 있는데, 가공식품, 주류 및 담배, 정제유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무역충격에 취약할 수 있음.
- 2016~2017년 상반기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에 대한 금수조치에 집중되어, 전체 소비자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3.3%)
 - 2016~2017년 상반기 대북제재는 주로 북한의 광산물, 수산물 수출금지에 집중
 - 북한 수입 가운데 정제유 수입 상한 강화, 산업용기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수입 제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2017년 12월에 채택
 - 정제유 수입 제재는 2017년 12월에 실질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 상승은 2017년 상반기부터 관찰, 이는 제재로 인한 수입 중단을 우려한 비축수요 증가의 결과로 추정
 -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은 곡물이 주도(품목별 기여도 4.4%p)한 것으로 나타남.
 - 식량수급여건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이는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 확대, 비축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추정
 - 경제적 충격 직후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은 코로나19 충격 직후인 2020년 2월 중에도 관찰
- 대북제재 강화의 수입 제한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은 2018년에 본격화
 - 기타소비재 물가가 29.2% 상승하여, 전체 소비재 물가 상승을 주도
 - 전체 물가 상승에 대한 기타소비재의 품목별 기여도는 10.8%p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 2017년 12월 시행된 대북제재의 전자기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기타소비재 중 일부 내구재(가전제품 등)의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
- 한편, 2019년 소비자물가는 9.5% 하락
- 2017~2018년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일부 품목을 제외한 소비재 수입이 대체로 대북제재 강화 이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경을 봉쇄한 결과, 소비자물가가 17.2%로 급등

- 곡물 가격 상승은 제한적(+3.2%)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외 식료품과 기타소비재 물가가 각각 39.1%, 12.2% 급등한 결과
- 곡물 외 식료품과 기타소비재의 품목별 기여도가 각각 10.9%p, 5.2%p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곡물 외 식료품의 가격 상승은 기상이변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과 수입증단에 따른 수입 가공식품 가격의 급등에 주로 기인

〈표 III-1〉 품목별 지수 변동률 및 기여도(지출목적별)

(전년대비, %, %p)

	가중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지수	〈1000.0〉	-8.9	-0.5	3.3	9.4	-9.5	17.2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559.5〉	-10.5	-3.4	4.6	-4.4	-8.8	23.8
		(-6.0)	(-1.9)	(2.5)	(-2.4)	(-4.2)	(11.5)
(곡물)	〈255.0〉	-6.8	-15.1	20.2	-6.3	-13.9	3.2
		(-1.7)	(-3.9)	(4.4)	(-1.6)	(-3.0)	(0.7)
(곡물 외 식료품)	〈304.5〉	-13.3	6.5	-5.8	-2.8	-4.7	39.1
		(-4.3)	(2.0)	(-1.9)	(-0.8)	(-1.2)	(10.9)
주류 및 담배	〈79.7〉	-0.7	-8.8	12.0	13.0	1.2	5.3
		(0.0)	(-0.7)	(0.9)	(1.0)	(0.1)	(0.5)
기타소비재	〈360.8〉	-8.1	5.7	-0.3	29.2	-12.3	12.2
		(-2.9)	(2.0)	(-0.1)	(10.8)	(-5.4)	(5.2)

주: 〈 〉내는 가중치, ()내는 품목별 기여도(%p)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6.10.~2020.3.)

〈<https://www.krei.re.kr/krei/globalList.do?key=317&pageType=0303>〉 (검색일: 2021.6.30.);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시산

□ 농산물 및 석탄·석유류 제외 지수*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에 비해 대북제재 영향은 더 높고,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은 더 낮음.

* 대개 가격변동이 잦은 농산물(주로 과일 및 채소류가 해당)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지수를 산정하나, 북한의 경우 대중수출과 관련된 석탄류도 수출 여부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여 제외

- 2017년과 2018년 지수는 각각 6.7%, 11.4%로 소비자물가 지수(3.3%, 9.4%)를 상회
 - 동 기간 대북제재 강화로 수출이 금지된 석탄은 내수로 전환되며 시장가격이 하락, 수입이 제한된 석유(휘발유)는 2017년 중 시장가격이 전년대비 78.3% 상승
 -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탄이 더 높아, 전체 소비자물가 변동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20년에는 농산물 및 석탄·석유류 제외 지수가 13.2%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7.2%)을 하회
 - 지난해 자연재해로 신선식품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122.7%)함에 따라, 농산물 및 석탄·석유류 지수는 전년대비 2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를 제외한 지수의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낮음.

〈표 III-2〉 농산물 및 석탄·석유류 제외 지수 변동률

(전년대비, %)

	가중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지수	〈1000.0〉	-8.9	-0.5	3.3	9.4	-9.5	17.2
농산물, 석탄석유류 제외	〈865.8〉	-7.3	-0.6	6.7	11.4	-10.4	13.2
농산물, 석탄석유류	〈134.2〉	-18.8	-3.0	-27.2	-9.9	1.8	27.9
(농산물)	〈83.1〉	-30.5	13.0	-23.7	-5.1	-21.8	122.7
(석탄석유류)	〈51.1〉	2.9	-8.1	-13.1	-13.4	10.9	-13.2
· 석탄	〈46.9〉	10.6	-8.2	-21.4	-13.8	17.3	-12.5
· 석유(휘발유)	〈4.2〉	-41.9	-7.0	78.3	-11.8	-19.6	-18.1

주: 〈 〉내는 가중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6.10.~2020.3.)

〈<https://www.krei.re.kr/krei/globalList.do?key=317&pageType=0303>〉 (검색일: 2021.6.30.);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시산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국경 봉쇄는 전 품목에 걸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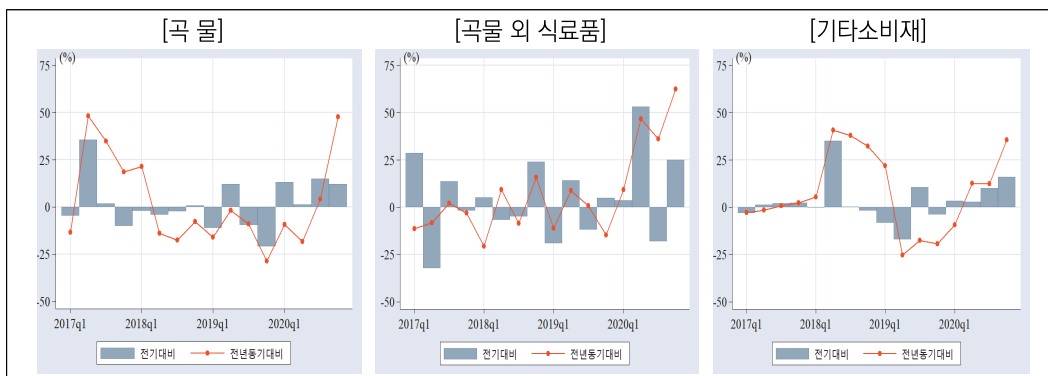
○ 곡물 가격은 2017년 상승 이후 2018~2020년 상반기까지 하향안정세(전년동기대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 상승세 전환

- 2017년 곡물 가격은 주요 작물(쌀, 옥수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결과이나, 2018~2019년에는 하향안정화 추세로 전환
- 쌀 가격은 2020년 초 코로나19 충격 직후 급등하였다가, 5월 이후 하향안정세로 전환한 반면³⁾, 옥수수 가격과 밀가루 가격이 2020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체 곡물 가격의 상승을 주도
 - 국경봉쇄에 따른 대중수입 중단,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에 따른 시장 활동 통제로 일부 곡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

○ 2020년에는 곡물 외 식료품, 기타소비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

- 곡물 외 식료품의 급등은 기상이변에 따른 신선식품의 가격 급등과 국경봉쇄에 따른 가공식품 수입 중단의 여파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타소비재 물가도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 충격에 취약

〈그림 III-1〉 품목별 변동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6. 10.~2020. 3.)
 <<https://www.krei.re.kr/krei/globalList.do?key=317&pageType=0303>> (검색일: 2021. 6. 30.);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 토대로 저자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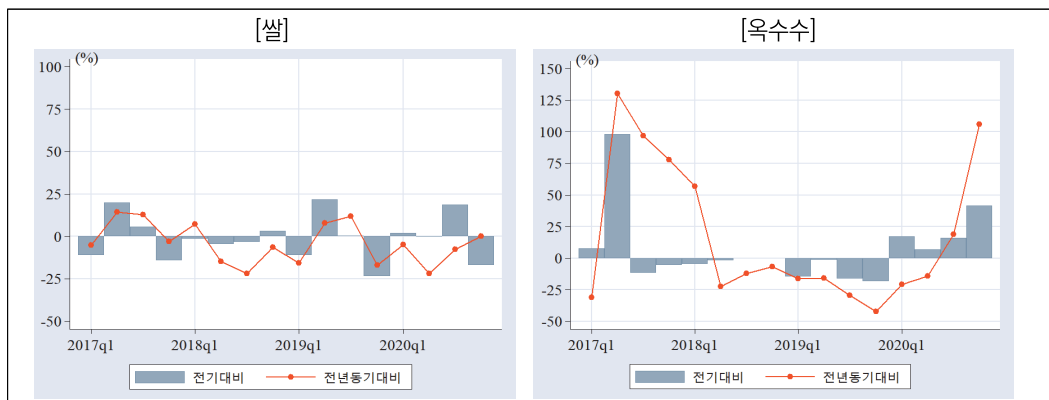
3) 최지영, “최근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0-13, 2020. 7. 10.), pp. 3~5,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f7b129e5-79c5-4049-9e92-f2472106c9d6>> (검색일: 2021. 6. 30.).

□ 주요 곡물 가격 동향

- 대북제재 강화 초기였던 2017년 쌀, 옥수수 가격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2018~2019년 중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
 - 2017년 상대적 상승세는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 확대가 시장 내 비축수요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추정
 - 2018~2019년 주요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한 것은 대북제재 자체가 곡물 수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며, 북한이 대부분의 곡물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충당, 대중곡물 도입량도 2017~2019년 대체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쌀 가격에 비해 급등락하는 경향
 - 대북제재 강화 초기인 2017년 중 옥수수 가격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나, 2018년 2/4분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 전환
 - 열등재에 해당하는 옥수수는 식량수급여건이 양호할 경우 가격이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거나, 식량부족이 심화되면 쌀 가격 대비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
 - 자연재해로 곡물생산량이 감소한 2020년의 경우, 하반기 옥수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1년에도 지속

〈그림 III-2〉 주요 곡물의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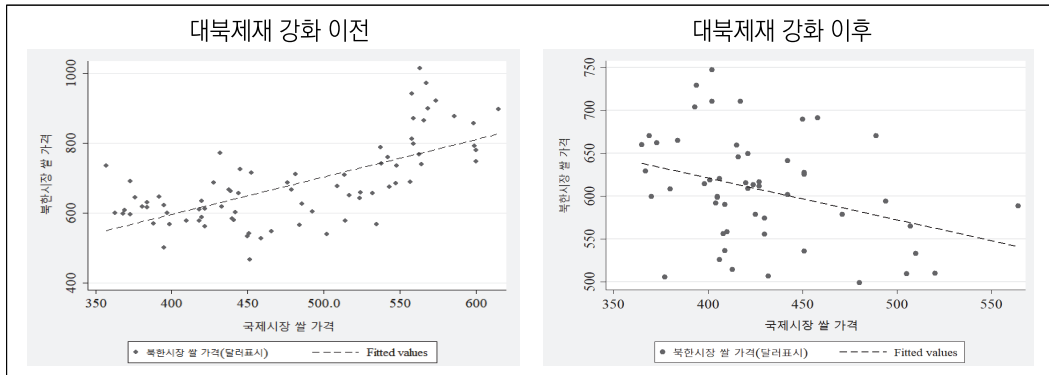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6.10.~2020.3.)
 <<https://www.krei.re.kr/krei/globalList.do?key=317&pageType=0303>> (검색일: 2021.6.30.);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시산

□ 곡물 가격의 국제시세와의 연관성 약화)

-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시장 쌀 가격의 국제시세와의 연관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관찰
 - 북한시장과 국제시장의 쌀 가격 관계를 비교하면, 대북제재 강화 이전의 정(+)의 상관관계가,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는 역(-)의 상관관계로 변화
 - 곡물의 국제시세 변동은 상업적 수입 등의 경로로 북한시장의 곡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는 이러한 영향력이 부분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추정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식량수급여건이 대체로 개선된 가운데, 대북제재 강화 이후 쌀 시장가격 형성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된 결과로 추정
 - 주요 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공공배급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통해 곡물 유통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추정
 - 또한, 시장 한도가격 규제 등 보조적인 정책 개입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그림 III-3〉 북한시장과 국제시장의 쌀 가격



주: 1) 『데일리NK』의 평양, 신의주, 혜산의 쌀 가격과 북한 원/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월별 달러표시 쌀 가격을 환산
2) 달러표시 쌀 가격/톤, 3) 대북제재 이전은 2010.1~2016.6., 이후는 2016.7~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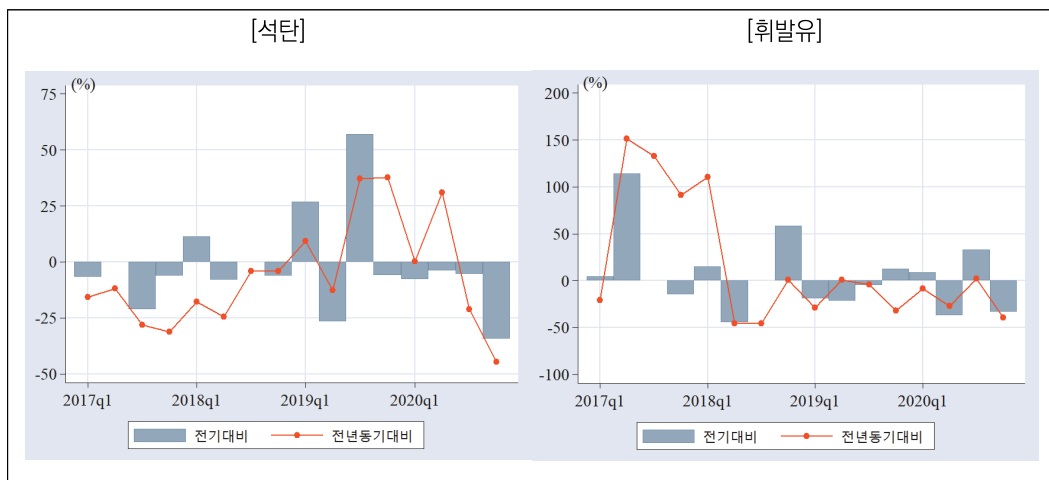
자료: 『데일리NK』, “북한시장 동향,” World Bank, 재인용: Ji Young Choi, “The North Korean Economy based on the Market Price and FX Rate,” in *2020/2021 The DPRK Economic Outlook*, ed. Suk Lee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1), p. 120, 〈Figure 4-4〉.

4) Ji Young Choi, “The North Korean Economy based on the Market Price and FX Rate,” in *2020/2021 The DPRK Economic Outlook*, ed. Suk Lee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1), pp. 119~120.

□ 주요 에너지 품목 동향

- 대북제재 강화 직후 북한시장의 주요 에너지 품목인 석탄과 휘발유 가격은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냄.
- 대북제재 강화로 수출이 중단되며, 내수로 전환된 석탄은 2017~2018년 중 전년대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17년 8월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된 직후 북한시장의 석탄 가격은 전년대비 -28.0~-31.2%까지 하락
- 반면, 휘발유 가격은 대북제재 강화로 상승
 - 정제유 수입 규모의 상한을 축소할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2017.12.) 이전인 2017년 2/4분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18년 1/4분기까지 상승세
 - 2018년 2/4분기 이후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연 50만 배럴 이하로 정제유 수입이 유지되는 데다, 밀수 등으로 부족분이 공급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그림 III-4〉 주요 에너지 품목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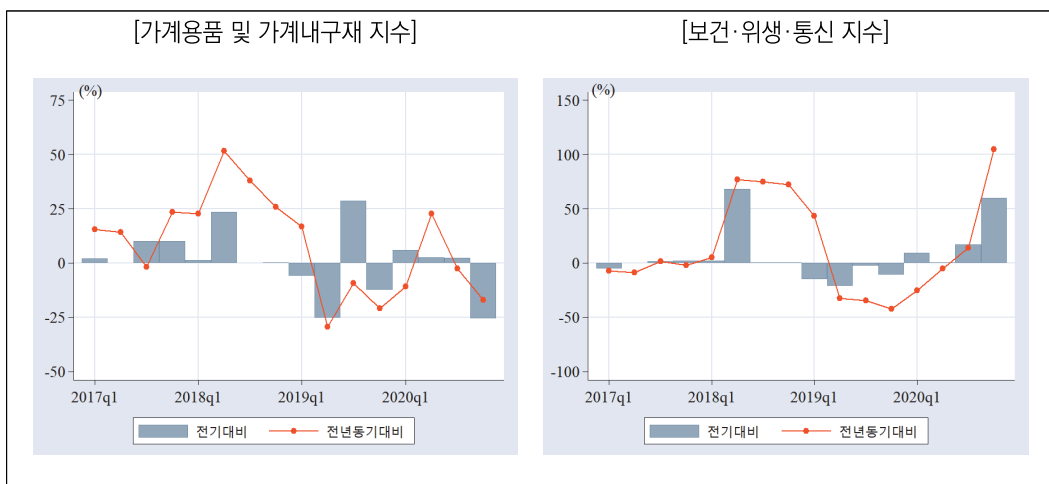


자료: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사산

□ 주요 기타소비재 품목 동향

- 식료품 이외 가계 소비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인 기타소비재 가격은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 충격으로 대체로 상승
- 가계 소모품, 가전제품, 가구 등에 해당하는 가계용품 및 가계내구재 지수는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7~2018년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
 -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전제품의 경우, 전자기기 등의 대북수출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2017.12.) 채택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
 - 2020년 1/4~3/4분기에는 전기 대비 상승세를 보이다가 4/4분기 급락하였는데, 시장 환율의 갑작스런 평가절상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
- 보건·위생·통신 지수는 2018년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도 전년대비 상승
 - 동 지수에는 보건·위생·교육·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 등이 포함

〈그림 Ⅲ-5〉 기타소비재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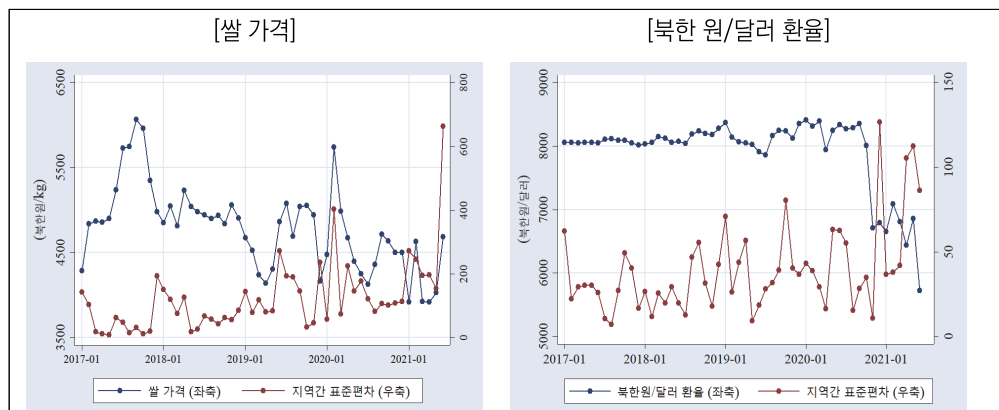
자료: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시산

〈참고 1〉

2021년 상반기 북한시장 가격·환율 동향

- 올해 들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 쌀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는 한편, 시장환율 변동성도 지난해 4/4분기 이후 심화
 - 시장 쌀 가격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직후인 2월 중 급등한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6월 중 혜산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확대
 - 대북제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던 쌀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된 것은 지난해 수해·태풍피해로 곡물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2020년 곡물생산량은 한국 농진청 추정치 기준 전년대비 5.2%, 북한 발표치(SDGs 자발적 국별 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 기준 17% 감소
 - 지난해 10월 중 급격히 평가절상된 시장환율은 6,500~7,000 북한 원/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올해 6월 중 5,000 북한 원/달러 수준으로 다시 급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
 - 시장환율이 단기간 급락하는 기간에는 지역 간 편차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관찰

〈그림 III-6〉 북한시장의 쌀 가격 및 달러 환율 추이



자료: 『데일리NK』, “북한시장 동향” <<https://www.dailynk.com/>> (검색일: 2021.7.16.).

IV 시장환율 변동

- 시장환율의 연도별 변동률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
- 시장 소비자물가는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 충격 직후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시장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 시장의 북한 원/달러 환율은 8,000원 내외, 북한 원/위안 환율은 1,200원 내외 수준에서 등락
 - 북한 원/달러 환율 변동이 북한 원/위안 환율에 비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8년 북한 원/달러 환율과 북한 원/위안 환율이 각각 2.0%,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이후 하락세 전환
 - 2018년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며, 시장환율이 직전 2년(2016~2017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지는 않음.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경을 봉쇄했던 2020년에는 북한 원/달러 환율과 북한 원/위안 환율이 각각 3.2%, 4.6% 하락
 - 당해 연도에는 10월 말 단기간 시장환율이 급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2021년 6월 중에도 한 차례 시장환율이 급락
 - 2020년 시장환율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2%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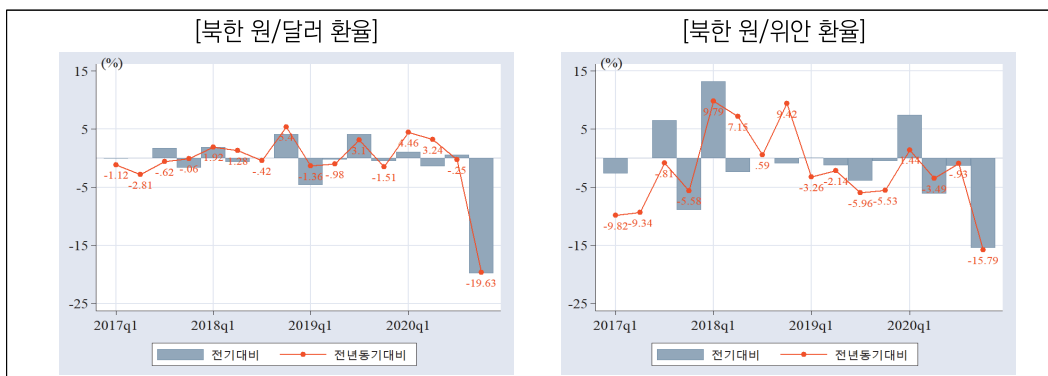
〈표 IV-1〉 연도별 시장환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북한 원/달러	8,380.5 (6.7)	8,183.4 (-2.4)	8,088.5 (-1.2)	8,253.0 (2.0)	8,236.2 (-0.2)	7,976.3 (-3.2)
북한 원/위안	1,315.8 (7.3)	1,267.0 (-3.7)	1,185.3 (-6.4)	1,263.8 (6.6)	1,210.5 (-4.2)	1,155.0 (-4.6)

주: ()내는 전년대비 변동률 (%) 임
자료: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시산

- 2020년 4/4분기 시장환율은 전년동기대비 -15.8~-19.6% 급락⁵⁾
- 북한 원/달러 환율은 대북제재 강화 직후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충격이 확산되었던 2020년 상대적으로 급등락
 - 코로나19 충격으로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상승세(4.5~3.2%)를 보이다가, 4/4분기에는 급락(-19.6%)
 - 단기간 시장환율이 평가절상된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시장 요인과 정책 요인의 측면에서 다음의 개연성을 제시해 볼 수 있음.
 - 시장 요인으로는 국경봉쇄로 수입이 급감하며 대중무역수지 적자폭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시장 내 외화수요가 감소한 것이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 그러나 시장 요인만으로 단기간 환율 하락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외화사용 통제, 시장환율 상한 부과 등의 북한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동반되었을 가능성
- 분기별 변동률에서도 북한 원/위안 환율의 변동성이 더 뚜렷
 - 대북제재 강화 직후인 2018년과 코로나19 충격이 확산되었던 2020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 시장환율의 분기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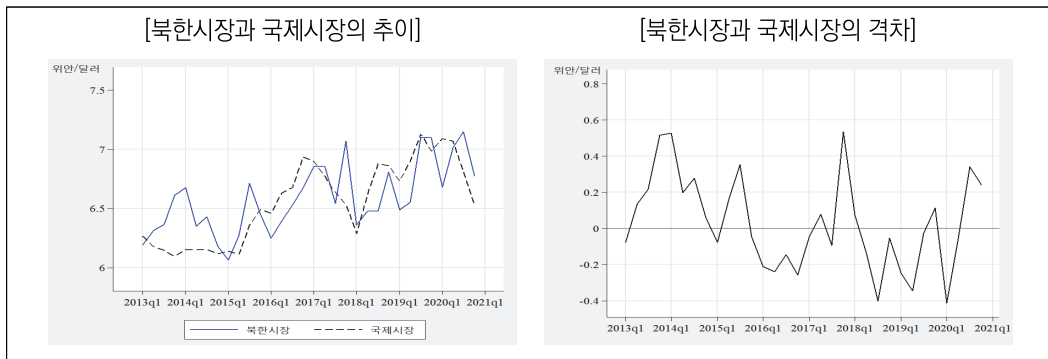
자료: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시산

5) 최근 북한 시장환율 변동요인 분석에 대해서는 Choi (2021)에서도 논의, 단 본고의 자료는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로 5개 지역 평균 자료임에 유의할 필요, Ji Young Choi, *Ibid.*, pp. 108~137.

□ 국제시세 변동도 북한시장 위안/달러 환율에 영향

- 북한시장의 환율도 국제시장에서 달러화, 위안화의 상대적 가치 변동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시장의 북한 원/달러 및 북한 원/위안 환율 자료로 위안/달러 재정환율을 시산
 - 각 시점에서 두 시장 간 격차가 존재하기는 하나, 북한시장의 위안/달러 환율도 국제시장의 달러화 강세 혹은 위안화 강세 흐름을 따르는 모습
 - 2015~2016년, 2018~2019년 북한시장의 위안/달러 환율 추세는 국제시장의 달러화 강세 추세를 반영
- 2013~2015년에는 북한시장의 위안/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안화 약세가 관찰되었으나, 2016년 이후 이러한 현상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⁶⁾
 - 대북제재 강화 이후 대중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며 시장에서 위안화 수급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시장에서 상대적 위안화 강세가 관찰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 2020년에는 대중수입 급감으로 대중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4/4분기 시장 환율 변동성이 단기간 확대되며 북한시장에서 상대적 위안화 약세가 관찰

〈그림 IV-2〉 북한시장 위안/달러 환율(국제시세와 비교)



자료: 통일연구원 수집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시산; IMF, <https://www.imf.org/external/np/fin/data/param_rms_mth.aspx> (검색일: 2021.6.30.).

6) Choi (2021)에서는 『데일리NK』자료와 『아시아프레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아시아프레스』 자료는 2018년 3/4분기~2020년 3/4분기까지 국제시세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나 시장환율이 급락한 2020년 4/4분기 이후에는 국제시세와 괴리가 확대(북한시장의 상대적 위안화 약세)되는 것으로 나타남. *Ibid.*, p. 130.

V 평가 및 전망

- 시장물가 변동은 대북제재 강화 전후로 뚜렷하게 대비
 - 2014~2016년 기간 중 북한시장 물가는 하향안정세를 유지
 - 이는 북한식 금융개혁, 식량수급여건 완화, 경공업 국산화 등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시도된 일련의 정책들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 2017년 이후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등의 경제적 충격이 이어지며 시장물가의 변동성은 확대
 - 대북제재와 코로나19는 주로 무역충격으로 제재품목 여부, 수입의존도 등에 따라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 대북제재 강화 이후 석탄 가격의 하락,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수출입 제재가 개별 상품의 북한시장 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 2017~2018년 중에는 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변동, 2020년에는 국경봉쇄로 수입이 급감하며 수입소비재 전반의 물가가 상승
 - 반면, 국내공급 비중이 높고, 북한당국의 물량·가격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곡물, 특히 쌀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
- 코로나19 충격은 대북제재 강화보다 북한 주민생활에 더 부정적인 영향
 - 2020년 시장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7.2% 상승하여,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영향(2017~2018년 +3.3~9.4% 상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경봉쇄에 따른 수입 감소가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심리적 불안, 방역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이동 통제, 자연재해에 따른 신선식품 공급 감소도 물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 반면, 2017~2019년의 경우, 중간재·소비재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어, 주민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

- 물론, 2020년 시장물가 상승에는 대북제재 장기화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순효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
- 국경봉쇄 장기화는 공장 가동을 저하, 시장 경제활동 위축을 통해 경제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
 - 중간재 수입 감소는 공장 가동을 저하를 통해 생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재 수입 감소는 시장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지속시킬 우려
-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추세
 - 옥수수 시장가격의 상대적 상승, 시장환율의 단기간 평가절상 등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각종 지표들의 변동성이 확대
 - 특히, 올해 들어 시장가격 및 시장환율의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고, 안정세를 유지하던 쌀 가격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음.
 - 2020년 식량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식량 형편이 긴장”되고 있음을 이례적으로 인정
 - 올해 북한당국의 예산규모 증가율이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여건 악화가 관찰되는 가운데, 외화사용 통제, 외화흡수 시도 등 정책 개입의 결과로 시장환율이 단기간 급격하게 하락했을 가능성
- 한편, 본고의 분석결과는 수집데이터의 불완전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
- 북한시장의 물가 정보는 규격 및 품질의 차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신뢰성이 크게 낮음을 감안할 필요
 - 일반적인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이 통계당국의 체계적 조사에 의해 수집·작성된 통계자료가 아니며, 북한경제의 현황 판단을 위한 연구자료의 성격임을 감안할 필요
 - 개별 시점의 시장 물가변동은 당시의 수급여건이 아닌, 조사된 품목의 규격 및 품질 차이, 또는 전달 과정의 착오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개별 시점의 가격 수준이나 지수 수준 자체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2〉

□ 북한시장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개요

-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동향』에 수록된 2013~2020년 북한시장의 분기별 식료품 가격과 통일연구원이 『데일리NK』를 통해 수집한 기타소비재 가격을 이용하여,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
 - 『북한농업동향』에는 『데일리NK』를 통해 수집된 북한 내 6개 지역의 시장가격 평균이 수록,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는 북한 내 5개 지역의 시장가격 평균(『북한농업동향』 조사지역 가운데 1개 지역은 제외)이 수록
- 북한시장 소비자물가지수 시산에는 한국 1975년 도시가계조사에 기초한 품목별 가중치를 적용
 - 북한가계의 소비지출 구조가 한국의 1975년과 유사하다고 가정
 -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 가운데 북한시장 물가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여, 한국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
 - 201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2013~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시산
 - 달러 표시, 위안 표시 가격은 동일 시점·동일 지역의 북한 원/달러 환율과 북한 원/위안 환율을 적용하여 북한 원 표시로 수정하여 시산

〈표 V-1〉 북한시장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가중치

지출목적별 분류	한국(1975년)	북한	
	가중치	품목수(개)	가중치
식료품·비주류 음료	458.0	32	559.5
(곡 물)	204.5	5	255.0
(곡물 외 식료품)	253.5	27	304.5
주류 및 담배	61.9	3	79.7
기타소비재	480.1	26	360.8
(주거: 가계용품·가계내구재)	110.0	6	62.5
(광열: 석탄·휘발유)	56.0	2	51.1
(피복)	92.5	5	100.2
(보건·위생·통신 등)	221.6	13	147.0
합 계	1000.0	61	1000.0

주: 한국 자료는 경제기획원 통계국(1976), 북한 자료는 저자 시산
 자료: 경제기획원 통계국, 『물가연보 (1976)』(과천: 경제기획원, 1976).

〈표 V-2〉 북한시장 소비자물가지수(품목별)

	가중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000.0	113.8	109.8	100.0	99.5	102.7	112.3	101.7	119.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559.5	109.5	111.7	100.0	96.6	101.1	96.6	88.1	109.1
곡물	255.0	111.1	107.3	100.0	84.9	102.0	95.6	82.3	84.9
쌀	114.2	105.0	96.5	100.0	96.9	101.4	91.3	88.1	79.8
옥수수	93.2	120.9	119.6	100.0	68.5	105.8	102.6	76.1	87.6
밀가루	30.1	108.2	102.1	100.0	96.2	95.8	77.0	76.5	104.8
감자	8.2	94.0	107.1	100.0	82.4	93.0	93.5	80.0	88.6
두부콩	9.3	149.9	125.4	100.0	100.2	107.4	102.9	87.4	90.0
곡물 외 식료품	304.5	108.2	115.4	100.0	106.5	100.3	97.5	92.9	129.2
농축수산물	190.4	101.8	122.0	100.0	110.3	100.7	100.4	95.0	137.6
가공식품	114.1	118.9	104.3	100.0	100.1	99.7	92.5	89.4	115.4
주류 및 담배	79.7	103.1	100.7	100.0	91.2	102.2	115.4	116.9	123.0
기타소비재	360.8	122.8	108.8	100.0	105.7	105.3	136.1	119.4	133.9
주거비	62.5	100.7	99.1	100.0	105.0	117.8	158.0	138.8	134.6
광열비	51.1	102.7	97.1	100.0	91.9	79.8	69.1	76.6	66.5
피복비	100.2	86.9	94.8	100.0	116.9	120.3	128.1	129.4	161.1
보건·위생·통신 등	147.0	163.7	126.5	100.0	103.1	98.7	155.5	119.3	138.6

주: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6.10.~2020.3.)

〈<https://www.krei.re.kr/krei/globalList.do?key=317&pageType=0303>〉 (검색일: 2021.6.30.);

통일연구원 수집 자료(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시산

참고문헌

단행본

경제기획원 통계국. 『물가연보(1976)』. 과천: 경제기획원, 1976.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세종: 산업연구원, 2018.

논문

최지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동향.” 『한반도 포커스』. 제41호, 2017.

Ji Young Choi. “The North Korean Economy based on the Market Price and FX Rate.”
In *2020/2021 The DPRK Economic Outlook*. edited by Suk Lee.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1.

기타자료

『데일리NK』.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www.krei.re.kr>>.

IMF <<https://www.imf.org>>.

통일연구원 비공개 내부자료.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가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KINU Insight 21-03

발 행 일 2021년 8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통일연구원, 2021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INU Insight